

# 80년 5월 뮤지컬 '광주' 온라인으로 먼저 만난다

10월 9일 초연 앞두고 2일 쇼케이스 제작 공개  
서울·부산·전주 등 이어 12월 11~13일 광주 공연  
출연 배우·KBS교향악단 협연 특별음악회 개최도

‘우리들의 사랑, 명예, 이름,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1980년 5월, 독재자의 죽음을 틈 타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는 모종의 시나리오를 짜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 시민을 폭도로 몰아 진압하고 정권 찬탈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것.



주인공 박한수 역을 맡은 민우혁.



뮤지컬 '광주' 주인공 테이.



뮤지컬 '광주' 출연진과 특별 연주회를 펼치는 KBS교향악단.

이에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폭력 시위를 조장할 목적을 띤 특수 군인들이 광주에 투입된다. 그들의 이름은 바로 '편의대'. 각종 모략을 일삼는 편의대와 민주화를 향한 시민들의 순수한 의지가 충돌하는 가운데 광주는 점점 고립되어 가는데...

80년 5월을 담은 창작뮤지컬이 드디어 공개된다.

오는 10월 9일 초연을 앞둔 뮤지컬 '광주'가 본 공연에 앞서 온라인을 통한 쇼케이스로 관객과 먼저 만난다.

제작자 라이브 측은 뮤지컬 '광주'의 내용을 보여주는 쇼케이스를 제작,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0월 2일 네이버TV와 V라이브를 통해 선보인다.

이번 쇼케이스에는 연출가 고선웅, 작곡가 최우정, 이성준 음악감독 등 작품을 빛어낸 제작진과 더불어 박한수 역의 민우혁·데이·서은광, 윤이건 역의 민영기·김찬호, 정화민 역의 장은아·정인지, 문수경 역의 정유지·이복소리·최지혜 등 모든 출연 배우들이 참여한다.

창작 뮤지컬 '광주'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작품으로, '2019년을 위한 행진곡 대중화·세계화 사업' 일환으로 기획됐다. 올

봄 배우 캐스팅을 마치고 지난 8월부터 본격 연습에 돌입했다.

작품의 무대는 1980년 5월 광주로, 군부 쿠데타 세력이 민주화를 요구하는 광주 시민을 폭도로 몰아 진압하고 정권 찬탈의 명분을 얻으려는 시점을 배경으로 한다.

국가권력의 폭력과 계략에도 굴하지 않는 시민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폭력시위를 조장하기 위해 투입된 한 편의대원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며, 5·18민주화 운동의 정신인 민주, 인권, 평화 등의 가치를 담았다.

연출을 맡은 고선웅은 연극 '푸르른 날

에', 뮤지컬 '홍도', '아리랑' 등을 히트시킨 연출가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진행한 관객참여형 총체극 '나는 광주에 없었다' 연출로 참여해 큰 관심을 모았다.

주연 배우로는 민우혁·데이·서은광·민영기 등이 출연하며 오디션을 통해 뽑힌 앙상블 17명 등 총 38명의 배우들이 출연을 펼친다.

'광주'는 다음달 9일부터 11월 8일 서울(대극로 흥익아트센터 대극장)에서 40여회의 공연을 가진 뒤 고양, 부산, 전주를 거쳐 오는 12월 11~13일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공연된다.

이어 오는 10월 16일에는 'KBS교향악단과 함께 하는 특별음악회' 공연이 KBS홀에서 열린다. KBS교향악단과 광주문화재단이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해 준비한 음악회로 뮤지컬 '광주'의 배우들과 KBS교향악단의 협연 무대다.

김대성 작곡가의 창작관현악곡인 교향시 '민주'를 비롯해 뮤지컬 '광주'의 주요 곡들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새길 수 있도록 기획됐다. 민우혁·민영기·장은아·정유지 등이 출연할 예정이다. 문의 062-670-746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박진현의 문화카페

미술관에 들어서자 은은한 자태를 뽐내는 '백련'(김현수 작)이 시선을 잡아끈다.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광주에서 '그날'의 송고한 정신이 다시 피어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은 작품 하나로 평범했던 로비 비가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고 싶을 만큼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했다.

전시장 동선을 따라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낮익은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구 전남도청과 전일빌딩, 상무관의 대형 모형들이 1980년의 금남로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 하다. 초등학교 5학년때 경험했던 정경주 작가의 '그날'을 소환한 '응시의 도시·광주'는 모형 안에 카메라를 설치해 당시 현장

마치 하나의 '오월 광주'를 연상시키다 고 입을 모았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 19로 전시관람이 여의치 않지만 특별전의 메시지를 대중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김 학예실장은 "5월 관련 전시들이 이미 여러번 관람했던 터라 솔직히 큰 기대를 하지 않았다"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외 유명 작가들을 참여시켜 완성도 높은 전시를 풀어낸 미술관의 역량이 놀랍다"고 말했다. 특히 미래지향적인 이번 전시는 5·18의 유산을 기억할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만큼 지역순회전을 통해 전국과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조언했다. 즉, 내년 1월 31일 전시가 끝나면 광주와 비슷한 아

## '별이 된 사람들'이 쏘아 올린 공

에 있는 듯한 감정을 불러 일으킨다.

광주시립미술관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기획한 특별전 '별이 된 사람들'이 미술애호가들 사이에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당초 5월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지난 8월15일에 개막한 전시는 기존과는 다른 과감한 시도와 새로운 감각이 돋보인다는 평이다. 과거 5월 전시의 주요 흐름이었던 고발 중심의 리얼리티 묘사 대신 은유와 암시로 광주정신의 미래를 내다 본 기획이 통한 것이다.

실제로 이 전시는 국내 주요 국립미술관 관계자들 사이에 '핫 이슈'로 떠올랐다. 최근 국립미술관의 행사가 참석한 후 전시를 관람한 이태호 미술평론가, 변종필 제주현대미술관장, 최은주 대구시립미술관장, 김주현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실장 등은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들은 제1·4전시실과 로비 등을 무대로 꾸며진 미술관 전시가

품을 지닌 제주 4·3 운동과 연계해 보다 많은 이들이 5·18 40주기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잘알다시피, 올해는 광주민주화운동 4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비엔날레 등 5월 정신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들이 내년으로 연기되거나 취소되는 등 우려곡절을 겪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국립미술관의 특별전이 지닌 의미는 크다. '신화가 된 오월의 이야기'를 예술적으로 현재화하고 스펙터클한 전시 연출을 통해 문화광주의 저력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별이 된 사람들'의 전국화를 이뤄내기 위해선 지역민들의 관심이 먼저일 것이다. 마침, 광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 조치로 미술관 등 공공시설이 개방된다고 하니 직접 전시장을 둘러 보자. 아무리 좋았던 '백련이 불어일전'이다.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잡토크 아카데미' 온라인 공개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원장 이무용)은 '문화예술 공공기관 잡토크 아카데미'를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온라인으로 오는 26일 선보인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공공기관 입시를 희망하는 대학(원)생들을 위해 기획됐으며 지난 1월 진행된 상반기 잡토크 아카데미에 이은 후속편으로 유튜브 채널 '유튜브 문전원TV'를 통해 만날 수 있다.

2020년 하반기 '문화예술 공공기관 잡토크 아카데미'는 유튜브 전남대 문전원TV를 비롯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통해 시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문화전문대학원 홈페이지(http://culture.jnu.ac.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문화전문대학원 석사과정과 일반대학원 문화학과 박사과정 신입생 모집은 10월 5일부터 시작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극단 Y, 5·18기념 연극 '죽음과 소녀' 무대에

23~27일 공동예술극장

극단 Y가 광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연극 '죽음과 소녀'를 선보인다. 23~27일 오후 3시, 24·25·26일 오후 7시30분 공동예술극장.

'죽음과 소녀'는 칠레의 소설가 아리엘 도르프만의 희곡 '죽음과 소녀'를 원작으

로 하며, 17년간 집권한 칠레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군사독재정부시절을 배경으로 극이 펼쳐진다.

칠레 군사독재 시절 고문 피해를 당한 여성이 15년이 지나도록 악몽에 시달리다 한 의사를 만나고서 그가 자신을 고문했다고 확신, 감금하고 폭력을 가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렸다.

국가폭력에 의한 상처를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

연출은 박규상이 맡았고, 송정우·양선영·정순기 등이 출연한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안전수칙을 준수해 진행된다. 문의 010-2684-5997.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국수나무 광주용봉점 (비엔날레)**  
북구 용봉동 1091-4(M-타워 KB국민은행건물)  
모든 메뉴 포장 및 배달 가능  
직접 전화 및 배달주문(배달의민족, 요기요)  
☎ 062)526-5475, 010-8621-5959

**명품웃수선전문점**  
나주시 중앙로63(나주교회건너편)  
남녀의류수선, 각종명품웃수선  
기능사 자격증 소유자  
친절 신용 본위  
☎ 010-2474-1457

**보광세탁소**  
동구 지산1동 동명로73-2(구 농장다리앞)  
각종의류세탁, 양복·양장 각종의류  
수선전문업소  
☎ 062)227-6815, 010-6681-5412

**대연건설**  
동구 계봉로 190번길 7-1(대인동)  
건설업·설비·토목·공장·수도·하수도  
☎ 062)236-1510, 010-2630-4820

**머리해요(미용실)**  
북구 용봉동 현대아파트1차앞  
개업할인 이벤트  
컷트8,000원 염색20,000원 펌25,000원  
크리닉50,000원 셋팅50,000원 매직50,000원  
☎ 062)511-2337, 010-6886-3171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평화식당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궁합  
택일, 개인지도 함.  
☎ 062)224-7687, 010-2611-7687

**약초당건강원**  
동구 산수동 557-33(산수시장동)  
인삼·별꽃·홍삼·생약초즙·봉어즙·장어즙  
땀발증·침증·포도즙 각종고급입니다.  
☎ 062)224-9559, 010-3617-9779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새서림 떡방앗간**  
북구 임동 서림초등학교 경문  
참기름, 고추방아, 떡주문일체  
☎ 062)526-4629, 010-5474-4629

**광호익스프레스**  
북구 자산로5(신안동)  
포장이사/일반이사/사무실이전/이사짐보관  
☎ 062)522-1414, 010-3605-1445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고전방**  
동구 공동 34-4(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 062)224-4869

**우리식당**  
남구 지석동 73-5번지  
(포충사와 대촌동사무소 중간지점)  
정성과 새로운 맛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회사·단체장부 환영)  
☎ 062)381-0066, 010-3085-0140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 062)222-1936

**일번지식당**  
나주시 영산포로284(구 영산포역도로변)  
흑염소탕, 뚝배기오리탕, 추어탕, 소갈비살  
순두부찌개, 뚝배기불고기, 불고기버섯탕, 삼계탕  
각종 모임 환영  
☎ 061)335-1110, 010-8543-9617

**the 사라헤어**  
북구 북문대로159번길 39  
(운암동 일신아파트 2차상가 1층)  
컷, 염색, 일반펌, 매직, 셋팅, 매직셋팅, 크리닉  
☎ 062)522-2380, 010-8200-9182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